

# 江攝, 宕攝의 合流와 音韻變化

金榮晚\*

## <目 次>

1. 머리말
2. 江·宕攝 字音의 韻母 再構
  - 2.0 陽韻部 字音의 注音
  - 2.1 陽聲韻 韻母
  - 2.2 入聲韻 韻母
  - 2.3 韻母 再構 要約
3. 江·宕攝 韻母의 音韻變化
4. 맺음말

## 1. 머리말

等韻圖에 反映된 音韻體系에 의하면 ‘攝’이란 韻尾가 동일하고 核母音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一즉 음운 대립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동일한 韻基를 지닌 一여러 개의 韻을 합병하여 일컫는 韻의 단위이다. 다만 入聲韻을 포함한 攝에서는 調音點이 동일한 두 가지 운미 즉 陽聲韻尾와 入聲韻尾가 나타난다. 攝이라는 용어는 《四聲等子》에 최초로 標識되었지만, 《四聲等子》內的 16攝이 《韻鏡》과 《七音略》內的 43轉과 韻目的 분류와 배열순서가 상응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攝’의 개념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培材大學校 外國學大學 中國語學專攻 教授

北宋 시기의 等韻圖인 《韻鏡》과 《七音略》에는 《廣韻》의 206韻이 43轉으로 분류되어 각기 43張의 韻圖로 구성되어 있고, 43轉은 '內轉' 또는 '外轉'으로 兩分되어 표지되었다. 南宋 시기의 等韻圖인 《四聲等子》에는 43轉이 16攝으로 분류되었고, 16攝은 '內轉' 또는 '外轉'으로 양분되어 표지되어 있다.<sup>1)</sup> 《四聲等子》에는 16攝의 韻圖가 通攝, 效攝, 宕攝, 江攝, 遇攝, 流攝, 蟹攝, 止攝, 臻攝, 山攝, 果攝, 假攝, 曾攝, 梗攝, 咸攝, 深攝, 이러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四聲等子》에는 江攝이 宕攝에, 假攝이 果攝에, 그리고 梗攝이 曾攝에 각각 합병되어 있고, 宕攝, 蟹攝, 止攝, 臻攝, 山攝, 果攝, 曾攝이 각각 開口呼와 合口呼 韻圖를 지니므로, 실제로는 韻圖 數가 20장이 된다.

元代에 劉鑑이 편찬한 《經史正音切韻指南》(1336)의 부록인 《檢韻十六攝》에 의하면 16攝의 명칭과 배열 순서는 通攝, 江攝, 止攝, 遇攝, 蟹攝, 臻攝, 山攝, 效攝, 果攝, 假攝, 宕攝, 曾攝, 梗攝, 流攝, 深攝, 咸攝이고, 다음과 같이 內轉과 外轉으로 양분되어 표지되었다.<sup>2)</sup>

內轉: 通 止 遇 果 宕 曾 流 深  
外轉: 江 蟹 臻 山 效 假 梗 咸

《四聲等子》에서 江攝이 宕攝에, 假攝이 果攝에, 그리고 梗攝이 曾攝에 각각 合流되어 같은 韻圖에 실려 있고 '內外混等'이라고 표지되어 있다.<sup>3)</sup> 이 現象은 韻母의 音韻變遷을 반영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 세 쌍의 攝 즉 江·宕攝, 果·假攝, 그리고 曾·梗攝이 각기 형성된 원인과 과정을 究明하게 되면 後期中古

1) 《四聲等子》의 卷頭に 실린 諸「例」중에서 "辨內外轉例"에 의하면, 內轉의 第二等에는 唇·舌·牙·喉音 四音 聲母를 가진 漢字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齒音 聲母를 가진 漢字들만 나타난다. 外轉에는 唇·舌·牙·齒·喉音 五音 聲母를 가진 漢字들이 第一·第二·第三·第四等에 두루 나타난다.

2) 《經史正音切韻指南》(1336)은 《四聲等子》를 藍本으로 삼고 《五音集韻》(1208 또는 1212)을 참고해서 편찬되었다. 《經史正音切韻指南》에는 《四聲等子》에 비해서 江攝이 운도 한 장, 梗攝이 운도 두 장, 그리고 咸攝 內的 嚴, 凡 두 개 韻이 별도로 한 장의 韻圖에 실리게 되어서 실제 운도 수는 24장이다. 濮之珍 2002:p.278, pp.345-348, 林燾·耿振生 2004:pp.159-161 참조.

3) 江·宕攝, 果·假攝, 그리고 曾·梗攝은 《切韻指掌圖》에도 같은 각 雙이 동일한 韻圖에 기재되어 있다.

音에서 現代北京語音까지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標準漢語 母音의 音韻變化를 記述하는 데에 중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洪武正韻》(1375)에는 76개의 韻目이 기록되어 있다. 이 76개 韻은 平·上·去聲이 각각 22개 그리고 入聲이 10개인데, 22개의 韻部로 재분류될 수 있다.<sup>4)</sup> 《洪武正韻》의 ‘東韻部’ 즉 ‘東·董·送·屋’韻은 ‘通攝’에 속하는데 ‘通攝’은 《廣韻》의 ‘東冬鍾, 屋沃燭’韻이 합병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洪武正韻》의 ‘陽韻部’ 즉 ‘陽·養·漾·藥’韻은 江·宕攝에 속하는데 江·宕攝은 《廣韻》의 ‘唐江陽, 鐸覺藥’韻이合併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中原音韻》(1324)의 ‘東·鍾’韻은 ‘通攝’에 속하고, ‘江·陽’韻은 江·宕攝에 속한다.

‘通, 江, 宕攝’에 속하는 字音의 韻尾는 모두 舌根音 즉 陽聲韻 韻尾는 舌根鼻音 /-ŋ/로, 入聲韻 韻尾는 舌根閉鎖音 /-k/로 再構되었다. 既存 연구에서 ‘通攝’은 그 韻基가 /-iŋ, k/로 재구되었고, 그 通時的 音韻變化도 비교적 잘 究明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江攝이 宕攝에 合流된 原因과 過程을 검토하여서 江·宕攝 韻母의 音韻變化를 究明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江·宕攝의 早期官話와 中期官話의 韻母를 再構하고, 江攝이 宕攝에 合流된 原因과 過程을 검토하고, 나아가 後期中古漢語부터 現代北京語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江·宕攝 韻母의 通時的 音韻變化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江·宕攝 즉 《洪武正韻》의 ‘陽韻部’, 그리고 《中原音韻》의 ‘江·陽’韻에 속하는 漢字들의 訓民正音 注音 자료에 근거하여서 江·宕攝 字音들의 韻母들을 音韻表示하고자 한다.

4) 韻書에서 동일한 韻은 동일한 韻基 즉 韻腹과 韻尾를 갖는다. 傳統 韻書에서 收錄字들은 먼저 聲調에 따라 분류되고 동일한 聲조 내에서 分韻되므로 한 韻에 속하는 자들은 당연히 같은 聲조를 지닌다. ‘韻部’란 聲조는 다르지만 동일한 韻基를 지니는 韻들을 지칭한다. 다만 入聲韻을 포함한 攝에서는 調音點이 동일한 두 가지 운미, 즉 陽聲韻尾와 入聲韻尾가 나타난다.

## 2. 江·宕攝 字音의 韻母 再構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여기서 早期官話의 母音體系, 早期等韻圖 內的 江攝과 宕攝의 韻母體系, 15世紀 韓國語의 母音體系, 그리고 近代漢語의 訓民正音 注音 方法에 關係 간략히 소개하겠다.<sup>5)</sup>

訓民正音を 이용하여 漢字의 近代漢語 讀音을 注音한 방식으로는 ‘正音’·‘俗音’·‘今俗音’이 있다. ‘正音’은 《洪武正韻》에 수록된 漢字들의 발음을 訓民正音으로 기록한 것으로 《洪武正韻釋義》(1455)에 기재되어 있고, 崔世珍(1478?~1543)이 편찬한 《四聲通解》(1517)에도 기재되어 있다.<sup>6)</sup> ‘俗音’은 15세기 중엽의 北方官話音을 訓民正音으로 표기한 것으로 《洪武正韻釋義》과 《四聲通解》에 수록된 漢字의 일부에 ‘正音’과 병기되어 있다. ‘今俗音’은 中宗 때에 崔世珍이 16세기 초에 당시의 北方官話音을 표기한 것이다. 《四聲通解》에는 平聲과 入聲 小韻 대표자 앞에 ‘正音’이 기재되었고, 일부 收錄字의 字釋에 ‘俗音’과 ‘今俗音’이 기재되었다. 崔世珍은 漢語 교과서 《老乞大》와 《朴通事》의 原文을 韓國어로 번역하고, 원문에 쓰인 모든 漢字 아래에 왼쪽에는 俗音 오른쪽에는 今俗音을 표기하여서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sup>7)</sup>를 편찬하였다.

5) 近代漢語音의 訓民正音 注音 方法에 대해서는 金英만 1998:pp.31-33 참조.

6) 《洪武正韻釋義》, 《四聲通攷》, 《四聲通解》의 編纂 經緯와 體裁에 대해서는 姜新彥 1973: pp.26-35 참조.

7) 이 두 책의 제목도 본디 《老乞大》와 《朴通事》였다. 그러나 남광우(1972)가 이 두 諺解本을, 《老乞大》, 《朴通事》, 그리고 이것들의 다른 諺解本들과 구별해 부르기 위해서, 崔世珍의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의 제목을 따라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래 이 두 책은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로 불린다. 康克鎭 1985:p.29 참조.

표 1 早期官話 母音 體系<sup>8)</sup>

	前舌	中舌	後舌
高		i	
低	e	a	ɔ

표 2 ·江·宕攝 韻母의 早期等韻圖 音韻體系<sup>9)</sup>

	江攝	宕攝
1等		-(w)ɔŋ/k
2等	-aŋ/k	
3等		-y(w)ɔŋ/k
4等		

표 3 15世紀 韓國語 母音 體系<sup>10)</sup>

	前舌	中舌	後舌
高	ㅣ i	ㅡ i	ㅓ u
中		ㅓ ə	ㅗ o
低		ㅓ a	ㅓ ʌ

8) Hsueh 1975:p.54, 薛鳳生 1986:p.93 참조.

9) 표 5는 薛鳳生(1999:pp.40-42)이 等韻圖 16攝의 音韻體系를 再構한 표에서 通·江·宕攝 韻母에 해당하는 것만 발췌한 것이다.

10) 표 3은 이기문 1977:p.111에서 인용한 것이다.

표 4 訓民正音 注음에 사용된 母音 글자와 音價<sup>11)</sup>

ㅣ	i	ㅡ	i	ㅏ	u	ㅓ	(ə)	ㅜ	Λ	ㅛ	o	ㅑ	a
				ㅕ	ju	ㅖ	(jə)	ㅗ	je			ㅛ	ja
						ㅛ	wə					ㅑ	wa
		ㅓ	ij	ㅕ	uj							ㅖ	aj
												ㅑ	waj
				ㅕ	juj	ㅖ	(jaj)	ㅖ	jei			ㅖ	jaj
						ㅖ	(jujə)		jwe				

표 5 訓民正音 注음에 사용된 終聲의 글자와 音價<sup>12)</sup>

ㅍ	p	ㅁ	m	ㅍ, ㅁ	w
ㅌ	t	ㄴ	n	ㅌ	(/i/)
ㄱ	k	ㅇ	ŋ		
ㅎ	?				

11) 표 1의 각 자리에서 왼 쪽 글자는 注音에 쓰인 것이고, 오른 쪽 글자는 그 글자를 國際音聲記號(IPA)로 代置한 것이다. 注音 글자를 IPA로 代치한 것이 近代漢語의 分절음을 음성 표기함과 다르던 전자를 ( ) 안에 두었다.

12) 표 2의 각 자리에서 왼 쪽 글자는 注音에 쓰인 것이고, 오른 쪽 글자는 그 글자가 표기하는 漢語 分절음을 IPA로 표기한 것이다. ① 《洪武正韻釋義》의 '正音'에서는 'ㅍ' [p], 'ㅌ' [t], 'ㄱ' [k]가 入聲 韻尾를 표기한다. '俗音'에서는 藥韻 운미만 만 'ㅍ' [w]로써 표기되고, 그 외 모든 입성 운미는 'ㅎ' [ʔ]로써 표기된다. ② 'ㅁ' [w]는 '正音'에서 蕭韻·爻韻·尤韻 韻尾를 표기한다. ③ 'ㅌ' [(i)∅]는 '俗音'에서 支韻의 零韻尾를 표기한다. (/i/) [∅]는 核母音이 高母音 /i/이고 韻尾에는 音이 없음을 표시한다.

## 2.0 陽韻部 漢字의 注音

이제 본 小節에서는 江·宕攝에 속하는 漢字들 즉 《洪武正韻》의 ‘陽韻部’ 즉 ‘陽·養·漾·藥’韻에 속하는 漢字의 早期等韻圖의 音과 《洪武正韻》의 音을 再構하여 音韻表示하고, 또한 동일한 字音에 대한 正音, 俗音, 今俗音 表記를 國際音聲記號로 代치하여서 早期官話音과 中期官話音을 音聲表示해보고자 한다.

표 6 ‘陽韻部’ 漢字의 注音 表記<sup>13)</sup>

早期等韻圖	剛 /kɔŋ/	當 /tɔŋ/	忘 /mywɔŋ/	壯 /tʃyɔŋ/	光 /kwɔŋ/
《洪武正韻》	剛 /kɔŋ/	當 /tɔŋ/	忘 /vwɔŋ/	壯 /tʃyɔŋ/	光 /kwɔŋ/
正音	가 <sup>ㄴ</sup> [kaŋ]	다 <sup>ㄴ</sup> [taŋ]	ㅁ ㅏ <sup>ㄴ</sup> [vaŋ]	ㅊ ㅏ <sup>ㄴ</sup> [tʃaŋ]	과 <sup>ㄴ</sup> /kwaŋ/
俗音	”	”	”	ㅊ ㅏ <sup>ㄴ</sup> [tʃwaŋ]	”
今俗音	”	”	와 <sup>ㄴ</sup> [waŋ]	좌 <sup>ㄴ</sup> [tʃwaŋ]	”

早期等韻圖	江 /kaŋ/	章 /tʃjaŋ/	托 /thɔk/	朴 /phak/	鶴 /ɣɔk/
《洪武正韻》	江 /kjaŋ/	章 /tʃjaŋ/	託 /thɔk/	朴 /phɔk/	鶴 /ɣHɔk/
正音	가 <sup>ㄴ</sup> [kjaŋ]	ㅊ ㅏ <sup>ㄴ</sup> [tʃjaŋ]	탁 [thak]	팍 [phak]	ᄃ ㅏ [ɣHak]
俗音	”	”	타ᄃ [thaw]	파ᄃ [phaw]	ᄃ ㅏᄃ [ɣHaw]
今俗音	”	”	토 [tho]	포 [pho]	허 [χə]

13) 표 6에서 ① 早期 等韻圖 欄에는 早期 等韻圖의 漢語音을 再構하여 音韻表示하였다. 薛鳳生 1985:pp.47-48 참조. ② 《洪武正韻釋義》欄에는 이 책의 漢語音을 재구하여 音韻表示하였다. Chou 1989:p.207 참조. ③ 正音은 《洪武正韻釋義》에 기재된 대로, 俗音과 今俗音은 《續譯老乞大》와 《續譯朴通事》에 기재된 대로 轉載했다. ④ 正音, 俗音, 今俗音 표기의 오른쪽에 각 注 音 표기를 IPA로 대치해서 音聲表示하여 놓았다. 표 4 참조. ⑤ 正音과 俗音 표기 중에서 일부는 文字入力上 制約 때문에 初聲이 中聲의 왼쪽에 終聲이 中聲의 오른쪽에 따로 인쇄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이러한 초성이나 중성은 중성에 결합되어서 단음절을 이룬다.

早期等韻圖	各 /kək/	捉 /tʂək/	學 /ɣək/	藥 /jək/	却 /kjək/
《洪武正韻》	各 /kək/	捉 /tʂək/	學 /ɣək/	藥 [jək]	却 /kjək/
正音	각 [kak]	* 사- [tʂwak]	** ㅏ- [yak]	약 [jak]	각 [khjak]
俗音	거 <sup>ㄷ</sup> [kəʔ]	* 사 <sup>ㅁ</sup> [tʂwaw]	** ㅏ <sup>ㅁ</sup> [ɣjaw]	야 <sup>ㅁ</sup> [jaw]	커 <sup>ㄷ</sup> [khəʔ]
今俗音	거 [kə]	조 [tʂo]	효 [ɣjo]	요 [jo]	커 [kə]

## 2.1 陽聲韻 韻母

이제 《洪武正韻》의 '陽韻部'의 陽聲韻 즉 '陽·養·漾韻'에 속한 漢字들의 韻母의 正音·俗音·今俗音 표기를 검토해보겠다.

### 1) 'ㅏ' [-aŋ] (正音, 俗音, 今俗音)

宕攝 1等 開口呼 /-ɔŋ/의 '剛·當·倉'字 등은 正音, 俗音, 今俗音에서 韻母가 모두 'ㅏ' [-aŋ]으로 표기되어 있다. 中期官話 이후에 陽聲韻 音節에서 나타나는 主要母音 音素 중에서 低母音 音素로는 /a/가 唯一하다. 그러므로 이 漢字들의 早期官話音은 [-aŋ] /-ɔŋ/, 中期官話音은 [-aŋ] /-aŋ/이다.

江攝 2等 開口呼<sup>14)</sup> /-aŋ/에서 脣音 聲母를 지닌 '邦·棒'字도 正音, 俗音, 今俗音에서 韻母가 모두 'ㅏ' [-aŋ]으로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 현상은 後期中古音에서 早期官話音에 이르는 기간에 江攝 2等 開口呼 /-aŋ,k/가—脣音 聲母를 지닌 字音의 核母音 /-a/가 舌根音 韻尾 /-ŋ,k/에 逆行同化되어서 /-ɔ-/로 변화해서—宕攝 1等 開口呼 /-ɔŋ,k/의 字音에 합병되었음을 증명한다.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공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a \rightarrow \text{ɔ} / \_ \text{ŋ,k} \quad (1)$$

14) 江攝 第二2等에는 開口呼 음절만 나타나고 合口呼 음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ㅜ’ [-aŋ] (正音, 俗音) → ‘ㅜ’ [-waŋ] (今俗音)

宕攝 3等 合口呼 /-jwaŋ/의 ‘微’母字인 ‘亡·忘·網’字 등은 韻母가 正音과 俗音 에서는 ‘ㅜ’ [-aŋ]으로, 今俗音에서는 ‘ㅜ’ [-waŋ]으로 표기되었다. 이 字音은 早期官話에서 聲母가 脣齒音 /v-/였을 때에는 脣音 介音 /-w-/가 아주 약하게 발음 되었기에 正音과 俗音에서 [-aŋ]으로 표기되었지만,<sup>15)</sup> 脣齒音 聲母 /v-/가 消失된 다음에는 脣音 介音 /-w-/가 분명히 발음되었기에 今俗音에서는 [-waŋ]으로 표기 되었다. 그러므로 이 漢字들의 早期官話音은 [-aŋ] /-ɔŋ/으로, 中期官話音은 [-waŋ] /-waŋ/으로 재구된다.

## 3) ‘ㅜ’ [-aŋ] (正音) → ‘ㅜ’ [-waŋ] (俗音, 今俗音)

宕攝 3等 開口呼 /-jɔŋ/의 ‘莊·初·崇·生·俟’母字인 ‘壯·牀·霜’字 등과 江攝 2等 開口呼 /-aŋ/의 ‘莊’組母字인 ‘窓·雙’字 등의 韻母는 ‘ㅜ’ [-aŋ]((-aŋ) /-ɔŋ/)으로 표기되었다. 이것은 이 두 종류의 字音들이 早期官話 이전에 합병되었음을 증명 해준다. 前者 /-jɔŋ/은 口蓋音 介音 /-j-/가 소실되어서 /-ɔŋ/으로 변했다. 後者 /-aŋ/도 母音이 後行되어서 /-ɔŋ/으로 변했다(規則 (1)). 이 운모는 中期官話 이전에 捲舌音 聲母 다음에 脣音 介音 /-w-/가 생성되어서 俗音과 今俗音에서는 ‘ㅜ’ [-waŋ]((-waŋ) /-waŋ/)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므로 이 字音들의 韻母는 早期官話音에는 [-aŋ] /-ɔŋ/으로, 中期官話音은 [-waŋ] /-waŋ/으로 재구된다.

$$j \rightarrow \emptyset / r \text{ \_\_\_ } \quad (2)$$

$$\emptyset \rightarrow w / r \text{ \_\_\_ } \quad \text{ɔŋ, k} \quad (3)$$

15) 脣齒音 聲母 다음에서 脣音 介音 /-w-/가 音聲層位에서 아주 약하게 발음되지만, 音韻層位 에서는 脣音 介音 /-w-/가 존재한다.

## 4) ‘ㅍ’ [-wɑŋ] (正音, 俗音, 今俗音)

宕攝 1等 合口呼 /-wɑŋ/의 喉牙音 聲母를 지닌 ‘光·荒·黃’字 등과 宕攝 3等 合口呼 /-jwɑŋ/의 喉牙音 聲母를 지닌 ‘筐·枉·王’字 등은 正音, 俗音, 今俗音에서 韻母가 모두 ‘ㅍ’ [-wɑŋ]으로 표기되어 있다. 후자 /-jwɑŋ/는 介音 /-j-/가 탈락되어서 전자 /-wɑŋ/에 합병되었다.

$$j \rightarrow \emptyset / G \_ wɑŋ, k \quad (4)$$

이 漢字들은 《中原音韻》과 現代北京語에서도 讀音이 동일하다. 官話의 核母音 體系의 변화에 기인하여서 中期官話 이후에는 非零韻尾로 끝나는 음절의 核母音으로 나타날 수 있는 低母音 音素는 오직 /-a-/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이 漢字들 韻母는 早期官話 讀音은 [-wɑŋ] /-wɑŋ/으로, 中期官話音은[-wɑŋ] /-wɑŋ/로 재구된다.

## 5) ‘ㅑ’ [-jaŋ] (正音, 俗音, 今俗音)

宕攝 3等 開口呼 /-jɑŋ/의 ‘強·章·央·羊’字 등과 江攝 2等 開口呼 /-aŋ/의 喉牙音 聲母를 지닌 ‘江·腔·巷’字 등은 正音, 俗音, 今俗音에서 모두 韻母가 ‘ㅑ’ [-jaŋ]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합병 현상을 통해서 후자 /-aŋ/ 韻母는 먼저 喉音 聲母와 核母音 /-a-/ 사이에 口蓋音 介音 /-j-/가 語中音添加(epenthesis)되었고 그 다음에 核母音 /-a-/가 軟口蓋音 韻尾 /-ŋ/에 逆行同化되어서 /-ɔ-/로 변화되었음을 미루어볼 수 있다.

$$\emptyset \rightarrow j / G \_ a \quad (5)$$

$$a \rightarrow \text{ɔ} / G \_ ɑŋ, k \quad (1)$$

이 변화에서 /-a-/가 규칙 (4)의 환경 요소가 되므로 규칙 (4)가 규칙(1)보다 먼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 韻母는 早期官話 讀音은 [-jaŋ] /-jɑŋ/으로, 中期官話音은 [-jaŋ] /-jaŋ/으로 재구된다.

宕攝 3等 開口呼 /-jɑŋ/에서 ‘章·昌·船·書·禪’ 字母를 聲母로 지닌 ‘章·

昌·商 등의 字音은 正音, 俗音, 今俗音에서 모두 口蓋音 介音 [-j-]를 보존하고 있는 반면에 ‘壯·初·崇·生·侯’ 字母를 聲母로 지닌 ‘壯·牀·霜’ 字 등의 字音들은 세 가지 注音에서 모두 介音 [-j-]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현상을 통해서 ‘壯·初·崇·生·侯’ 字母 聲母를 지닌 字音들은 《洪武正韻》 이전에 모두 口蓋音 介音 [-j-]가 탈락했고 聲母가 捲舌音 [ts-, tsh-, s-, ]으로 변화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2.2 入聲韻 韻母

이제 《洪武正韻》의 ‘陽韻部’의 入聲韻 즉 ‘藥韻’에 속한 漢字들의 韻母의 正音 俗音 今俗音 表記를 검토해보겠다.

正音에서 ‘藥韻’ 字音들은 韻尾가 ‘讀書音’<sup>16)</sup>을 따라서 일률적으로 軟口蓋閉鎖音 ‘ㄱ’ [k]으로 표기되었다. 俗音에서 ‘藥韻’ 字音들은 대부분 韻尾가 ‘口語音’을 따라서 半母音 ‘ㅍ’ [w]로 표기되었지만, 일부는 聲門閉鎖音 韻尾 ‘ㄷ’ [ʔ]로 표기되었다. 전자의 예로는 ‘學’<sup>ㄷ</sup> ㅍ [xjaw] · 藥 ㅍ [jaw] 字 등이 있고, 후자의 예는 ‘各’<sup>ㄷ</sup> [kəʔ] · 却 ㄷ [khəʔ] 등이 있다.

### 1) ‘ㄱ’ [-ak] (正音) → ‘ㅍ’ [-aw] (俗音) → ‘ㄷ’ [-o] (今俗音)

宕攝 1等 開口呼 /-ɔk/의 ‘鐸韻’ 字인 ‘托·博·莫·落’ 字 등은 韻母가 正音에서는 ‘ㄱ’ [-ak], 俗音에서는 ‘ㅍ’ [-aw], 今俗音에서는 ‘ㄷ’ [-o]로 표기되었다. 이 韻母의 早期官話 讀書音은 [-ak] /-ɔk/으로, 口語音은 [-aw] /-ɔw/로, 中期官話 讀書音

16) 中古漢語에서 入聲韻에 속했던 字音들의 발음은 近代漢語에서 ‘讀書音’과 ‘口語音’ 두 가지 방식으로 음운변화를 거쳤다. ‘口語音’은 北方官話에서, ‘讀書音’은 下江官話에서 유래한다. 이 두 가지 발음 방식은 음운론적으로 거의 같다. ‘口語音’은 早期官話 시기 이전에 入聲 韻尾를 소실한 반면에 ‘讀書音’은 入聲 韻尾를 中期官話 시기까지 보존하였다. 《洪武正韻》은 讀書音 방식을 준수했다. 《中原音韻》은 讀書音 발음을 많이 차용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口語音 방식을 준수했다. Hsueh 1975, 薛鳳生 1978 참조.

은 [-o] /-ɔ/로 재구된다.

2) ‘ㄱ’ [-ak] (正音) → ‘ㄱ’ [-aw] (俗音) → ‘ㄱ’ [-ə] (今俗音)

宕攝 1等 開口呼 /-ɔk/의 ‘鐸韻字’鶴字는 韻母가 正音에서는 ‘ㄱ’ [-ak], 俗音에서는 ‘ㄱ’ [-aw], 今俗音에서는 ‘ㄱ’ [-ə]로 표기되어 있다. 이 韻母의 早期官話 讀書音은 [-ak] /-ɔk/으로, 口語音은 [-aw] /-ɔw/로, 中期官話 讀書音은 [-ɻ] /-ɔ/로 재구된다.

3) ‘ㄱ’ [-ak] (正音) → ‘ㄱ’ [-ə] (俗音) → ‘ㄱ’ [-ə] (今俗音)

宕攝 1等 開口呼 /-ɔk/의 ‘鐸韻字’인 ‘各’字는 韻母가 正音에서는 ‘ㄱ’ [-ak], 俗音에서는 ‘ㄱ’ [-ə], 今俗音에서는 ‘ㄱ’ [-ə]로 표기되어 있다. 이 字音은 세 가지 주음에서 모두 讀書音으로 표기되었다. 이 韻母의 早期官話 讀書音은 [-ak] /-ɔk/에서 [-ɔ?] /-ɔ?/로, 中期官話 讀書音은 [-ɻ] /-ɔ/로 재구된다.

4) ‘ㄱ’ [-wak] (正音) → ‘ㄱ’ [-waw] (俗音) → ‘ㄱ’ [-o] (今俗音)

江攝 2等 開口呼 /-ak/의 ‘覺韻字’인 ‘捉·朔’字는 韻母가 正音에서는 ‘ㄱ’ [-wak], 俗音에서는 ‘ㄱ’ [-waw], 今俗音에서는 ‘ㄱ’ [-o]로 표기되었다. ‘捉·朔’字音은 捲舌音 聲母 다음에서 脣音 介音 /-w-/이 첨가되어서 合口呼로 변했다(規則 (3)).<sup>17)</sup> 이 韻母의 早期官話 讀書音은 [-wak] /-wɔk/으로, 口語音은 [-waw] /-wɔw/로, 中期官話 讀書音은 [-o] /-ɔ/로 재구된다.

17) 《切韻指掌圖에서》 江攝 2等 ‘覺’字와 ‘朔’字가 合口呼로 표지되어 있다. 《經史正音切韻指南》에서 ‘覺’字는 開口呼로, ‘捉·朔’字는 合口呼로 표지되어 있다.

## 5) ‘ㄱ’ [-jak] (正音) → ‘ㄱ’ [-jaw] (俗音) → ‘ㄱ’ [-jo] (今俗音)

宕攝 3等 開口呼 /-jak/의 ‘藥韻字’인 ‘雀·着·藥’字와 江攝 2等 開口呼 /-ak/의 ‘覺韻’ 喉牙音 聲母 字인 ‘角·學’字는 韻母가 合併되었다(규칙 (5), 규칙 (1)). 이 韻母는 正音에서 ‘ㄱ’ [-jak], 俗音에서는 ‘ㄱ’ [-jaw] /jow/, 今俗音에서 ‘ㄱ’ [-jo] /-jo/로 표기되어 있다. 이 韻母의 早期官話 讀書音은 [-jak] /-jak/으로, 口語音은 [-jaw] /-jow/로, 中期官話 讀書音은 [-jo] /-jo/로 재구된다.

## 6) ‘ㄱ’ [-jak] (正音) → ‘ㄱ’ [-əʔ] (俗音) → ‘ㄱ’ [-ə] (今俗音)

宕攝 3等 開口呼 /-jak/의 ‘藥韻字’인 ‘卻’字는 正音에서는 ‘ㄱ’ [-jak], 俗音에서는 ‘ㄱ’ [-əʔ], 今俗音에서는 ‘ㄱ’ [-ə]로 표기되어 있다. 이 字音은 세 가지 주음에서 모두 讀書音으로 표기되었다. 이 韻母의 早期官話 讀書音은 [-jak] /-jak/에서 [-əʔ] /-əʔ/로, 中期官話 讀書音은 [-ə] /-ə/로 재구된다.

## 2.3 韻母 再構 要約

이상에서 江·宕攝에 속하는 字音들의 訓民正音 注音에 의거하여 近代漢語音 韻母들을 재구하였다. 陽聲韻 韻尾는 [-ŋ]으로 표기되었다. 入聲韻 韻尾는 正音에서 [-k], 俗音에서 [-ʔ] 또는 /-w/로, 今俗音에서 零韻尾로 표기되어서 入聲韻尾 소실 과정을 보여준다. 이제 이것들을 참고하여서 江·宕攝 韻母의 早期等韻圖音, 早期官話音과 中期官話音을 音聲表示하고 音韻表示하고 이와 아울러 現代北京語音도 함께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江·宕攝 韻母 再構 要約<sup>18)</sup>

陽聲韻

正音	[-aŋ]	[-waŋ]	[-jaŋ]
俗音	[-aŋ]	[-waŋ]	[-jaŋ]
今俗音	[-aŋ]	[-waŋ]	[-jaŋ]

入聲韻

正音	[-ak]	[-wak]	[-jak]	
俗音	[-aw]	[-waw]	[-jaw]	[-əʔ]
今俗音	[-o]	[-ə]	[-jo]	

표 8 江·宕攝 韻母 音韻表示<sup>19)</sup>

陽聲韻

早期等韻圖音	/-aŋ/, /-ɔŋ/-	/-wɔŋ/	/-jɔŋ/
早期官話音	[-aŋ] /-ɔŋ/	[-waŋ] /-wɔŋ/	[-jaŋ] /-jɔŋ/
中期官話音	[-aŋ] /-aŋ/	[-waŋ] /-waŋ/	[-jaŋ] /-jaŋ/
現代北京語音	[-aŋ] /-aŋ/	[-waŋ] /-waŋ/	[-jaŋ] /-jaŋ/

入聲韻

後期中古音	/-ak/, /-ɔk/	/-wɔk/	/-jɔk/	
早期官話音	[-ak] /-ɔk/	[-wak] /-wɔk/	[-jak] /-jɔk/	[-əʔ] /-ɔʔ/
中期官話音	[-aw] /-ɔw/	[-waw] [-wɔw]	[-jaw] /-jɔw/	[-o] /-ɔ/
現代北京語音	[-aɔ] /-aw/	[-wɔ] /-wə/	[-jaw] /-jaw/	[-ə] [-ɔ]
			[ɥe] /jwə/	
			[jaɔ] /-jaw/	[-ɻ] /-ə/

18) 入聲韻 韻尾는 《洪武正韻釋義》 내의 正音에서는 [-k]로 표기되었으나 《四聲通解》에 기록된 正音에서는 표기되지 않았다.

19) 早期等韻圖音은 음성 자료가 없으므로 음운표시만 한다.

## 3. 江·宕攝 韻母의 音韻變化

앞 節에서 訓民正音 注音에 의거하여 江攝과 宕攝이 합병되어 이루어진 《洪武正韻》 '陽'韻部(陽·養·漾·藥韻) 韻母의 早期官話音과 中期官話音을 재구하였다. 이제 이렇게 재구한 '陽·養·漾·藥韻'에 속한 韻母의 音과 音素들을 그 이전 으로는 後期中古音, 그 이후로는 現代北京語音과 비교하여서 江·宕攝 韻母의 音韻變化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洪武正韻譯訓》 內的 正音이 표기한 漢語 음운체계에서 唐, 江, 陽韻의 陽聲韻 韻尾는 舌根鼻音 [-ŋ] /-ŋ/이고 入聲韻 韻尾는 舌根閉鎖音 /-k/이다. 後期中古音에서 早期官話音에 이르는 기간에 早期等韻圖의 江攝 第二等 江, 講, 絳, 覺韻 (/ -aŋ, k/), 宕攝 第一等 唐, 蕩, 宕, 鐸韻 (/ -(w)ɔŋ, k/), 그리고 宕攝 第三等 陽, 養, 漾, 藥韻 (/ -y(w)ɔŋ, k/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합류되었다.

江攝 2等 開口呼의 核母音인 低中舌母音 /a/가 軟口蓋音 韻尾 /-ŋ, k/에 逆行同化되어서 低後舌母音 /ɔ/로 변화하여서 宕攝 1等 開口呼의 核母音 /ɔ/에 합병되었다(2.1 1), 2.2 5) 참조).

$$a \rightarrow \text{ɔ} / \_ \text{ŋ, k} \quad (1)$$

宕攝 3等 開口呼 /-jɔŋ/ '莊'組母字의 韻母는 口蓋音 介音 /-j-/가 捲舌音 聲母 다음에서 소실되어서 /-ɔŋ/가 되었다.

$$j \rightarrow \emptyset / r \_ \quad (2)$$

江攝 2等 開口呼 /-aŋ, k/의 '莊'組母字의 韻母는 核母音인 韻尾 /-ŋ, k/에 역행동화되어서 /-ɔŋ/로 변화했다(규칙 (1)). 이렇게 해서 宕攝 3等 開口呼와 江攝 2等 開口呼의 '莊'組母字의 韻母는 모두 /-ɔŋ, k/가 되었다. 이 韻母 /-ɔŋ, k/는 捲舌音 聲母 '莊'組 다음에서 脣音 介音 /-w-/가 첨가되어서 /-wɔŋ, k/가 되었다(2.1 3), 2.2 4) 참조).

$$\emptyset \rightarrow w / r \_ \text{ɔŋ, k} \quad (3)$$

宕攝 1等 合口呼 /-wɔŋ, k/와 宕攝 3等 合口呼 /-jwɔŋ, k/의 喉牙音 聲母를 지닌 字音은 早期官話 후자는 介音 /-j-/가 탈락되어서 전자 /-wɔŋ, k/에 합병되었다(2.1.

## 4) 참조).

$$j \rightarrow \emptyset / G \_ \_ w\alpha\eta, k \quad (4)$$

江攝 2等 開口呼 /-aŋ, k/은 喉牙音 聲母와 核母音 /-a-/ 사이에 口蓋音 介音 /-j-/가 添加되었고, 그 다음에 核母音 /-a-/가 韻尾 /-ŋ/에 역행동화되어서 /-ɔ-/로 변화되었다. 이런 절차로 江攝 2等 開口呼 /-aŋ, k/은 /-jɔŋ, k/으로 변화되어서 宕攝 3等 開口呼 /-jɔŋ/에 합류되었다(2.1. 5), 2.2 5)) 참조).

$$\emptyset \rightarrow j / G \_ \_ a \quad (5)$$

$$a \rightarrow \text{ɔ} / G \_ \_ \alpha\eta, k \quad (1)$$

상기한 바와 같이 後期中古音 시기에 이미 江攝의 核母音 /a/가 韻尾 /-ŋ, k/에 역행동화되어서 /ɔ/로 변화되어 宕攝의 核韻母에 合併되었고,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해서 江·宕攝 韻母에서 口蓋音 介音 /-j-/가 첨가되거나 소실되었고, 순음 介음 /-w-/가 첨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江攝과 宕攝은 早期官話 시기 이전에 합류되었다. 江攝과 宕攝이 이렇게 합류된 이래 《四聲等子》와 《切韻指掌圖》에서는 이 두 攝에 속한 韻들을 동일한 운도에 기재되었다.<sup>20)</sup> 早期官話 시기에 이르러서 《中原音韻》에서 江·宕攝의 陽聲韻들은 江陽韻 (/ɔŋ/)을 이루었고, 江·宕攝의 入聲韻들은 入聲韻尾 /-p, t, k/가 消失되고 平, 上, 去 三聲으로 분산되었다. 《洪武正韻》에서는 江·宕攝 陽聲韻들은 '陽韻部'의 陽, 養, 漾韻 (/ɔŋ/)을 이루었고, 江, 宕攝의 入聲韻들은 '陽韻部'의 藥韻 (/ɔk)을 이루었다. 中期官話와 現代北京語에서 江, 宕攝의 陽聲韻에서 유래한 字들은 韻基가 /-aŋ/이 되었고, 이것은 '十三韻'<sup>21)</sup>의 '江陽韻 /-aŋ/을 이루게 되었다.

20) 江攝과 宕攝은 《四聲等子》에서 第三圖와 第四圖에 함께 기재되어 '內外混等'이라고 표지되어 있고, 《切韻指掌圖》에 第十三圖와 第十四圖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21) '十三韻'은 明末·淸初 이래 官話 사용 지역의 戲曲 등 通俗文學에서 押韻하는 데에 쓰인 13가지 韻部를 일컫는다.



## 4. 맺음말

江·宕攝의 陽聲韻 韻尾 舌根鼻音 /-ŋ/는 上古音부터 現代北京語音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었다. 中期官話와 現代北京語에서 江,宕攝의 陽聲韻에 속한 字音들은 韻基가 /-aŋ/이 되었고, ‘十三韻<sup>22)</sup>’의 江陽韻 /-aŋ/을 이루게 되었다. 早期官話의 低母音 音素 3개 즉 /e, a, ɔ/는 中期官話에 非零聲母 音節에서 低母音 音素 1개 즉 /a/로 합병되었다.<sup>23)</sup> 따라서 江·宕攝 陽聲韻에 속한 字音들의 韻基는 早期官話에서 [-aŋ] /-ɔŋ/으로, 中期官話와 現代北京語에서 韻基가 [-aŋ] /-aŋ/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早期官話의 韻基 [-aŋ] /-ɔŋ/이 中期官話의 [-aŋ] /-aŋ/으로 변화한 것은 音韻的 音變化(phonemic sound change) 즉 音韻變化(phonological change)이다.<sup>24)</sup>

江,宕攝에 속하는 字音의 入聲韻尾는 上古音부터 後期中古音까지 舌根閉鎖音 /-k/로 再構되었다. 이 入聲韻尾 /-k/는 後期中古音에서 早期官話 사이에 ‘北京官話’에서는 소실되었지만, ‘南京官話’에서는 대략 中期官話 시기 전후까지 聲門閉鎖音 /-ʔ/ 또는 이것과 近似한 子音으로 잔존했을 것이다. 전자의 발음 방식은 ‘讀書音’, 후자의 발음 방식은 ‘口語音’으로 불린다. 이 두 가지 발음 방식은 音韻論적으로 거의 같다. 다만 ‘讀書音’은 中期官話 시기 전후까지 入聲 閉鎖音 韻尾를 보존하였지만, ‘口語音’은 早期官話 시기 이전에 입성 폐쇄음 운미를 소실하였다. 《洪武正韻》은 讀書音 방식을 준수했다. 《中原音韻》은 讀書音 발음을 많이 차용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口語音 방식을 준수했다.<sup>25)</sup>

《洪武正韻韻略》 內的 正音에서 入聲韻 ‘藥韻’의 운미는 ‘ㄱ’[-k]로 표기되었다.

22) ‘十三韻’은 明末·清初 이래 官話 사용 지역의 戲曲, 曲藝 등 通俗文學에서 押韻하는 데에 쓰인 13가지 韻目을 일컫는다.

23) 《中原音韻》의 韻部 寒山 /-an, -wan, -yan/, 桓歡 /-won/, 先前 /-en/은 합병되어서 ‘十三韻’의 言前韻 /-an/을 이루었다. 薛鳳生 1999:p.102 참조.

24) 早期官話의 4母音 體系(즉 高母音 音素 1개 /i/ 低母音 音素 3개 /e, a, ɔ/)는 現代北京語의 3母音 體系(즉 高, 中, 低母音 각 1개 /i, ə, a/)로 변화되었다. 中期官話는 이 변화의 過渡期로서 零韻尾 음절에서는 모음 음소가 4개 즉 /i, e, a, ɔ/, 非零韻尾 음절에서는 母音 음소가 2개 즉 /i, a/ 나타났다. 표 1,拙著 1989:p.230, 1994 참조.

25) Hsueh 1975, 薛鳳生 1978 참조.

이 현상은 즉 早期官話 시기에 ‘南京官話’에서 ‘藥韻’의 운미가 [-k] /-k/로 받음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四聲通解》內의 正音에서는 ‘藥韻 韻尾’만 ‘ㄹ’ [-w]으로 표기된 것 이외에는 入聲韻尾가 표기되지 않았다. 이 현상으로 미루어보면 早期官話 시기에 北方官話에서는 入聲韻尾 /-k/가 이미 消失되었고, 다만 藥韻 韻尾만 [-w] 또는 이것과 近似한 音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洪武正韻韻圖》內의 俗音에서 藥韻의 入聲韻尾만 ‘ㄹ’ [w]로 표기되었고 그 외의 入聲韻尾는 ‘ㄷ’ [ʔ]로 표기되었다. 《四聲通解》內의 俗音에서 入聲韻尾는 일률적으로 ‘ㄷ’ [ʔ]로 표기되었다. 《翻譯老乞大》《翻譯朴通事》內의 俗音에서 ‘藥韻’ 字音들은 대부분 韻尾가 ‘口語音’을 따라서 ㄹ母音 ‘ㄹ’ [w]로 표기되었지만, 일부는 聲門閉鎖音 韻尾 ‘ㄷ’ [ʔ]로 표기되었다. 전자의 예로는 ‘學 ㄹ ㅈㄹ [xjaw] · 藥 ㅈㄹ [jaw]’字 등이 있고, 후자의 예는 ‘各 ㄷ [kaʔ] · 却 ㄷ [khaʔ]’ 등이 있다. 그러나 今俗音에서는 ‘藥韻’ 字音마저도 오히려 讀書音을 따라서 ‘ㄱ’ [-o#] 또는 ‘ㄱ’ [-o#]로 표기되었다.

이 사실은 15세기에 南京官話가 北方官話에 차용되었기 때문에 入聲 字音에 ‘讀書音’이 流行하였지만, ‘藥韻’ 字音만은 ‘口語音’을 따랐음을 드러낸다. ‘藥韻 韻尾’가 이처럼 讀書音에서는 口語音으로, 그 후에 다시 讀書音으로 전환된 현상은 16세기 초에는 北方官話에서 入聲韻尾 字音들은 주로 ‘讀書音’ 방식을 따랐다는 점을 밝혀준다.<sup>26)</sup>

이 연구에서 江攝과 宕攝이 합류된 과정과 원인을 음운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중요한 發見點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後期中古音에서 早期官話에 이르는 기간에 江攝과 宕攝은 核母音 /a/와 核母音 /ɔ/가 합병되고, 이 두 攝의 字音에서 介音 /-j-/가 첨가 또는 탈각되고 介音 /-w/가 첨가되어서 《四聲等子》의 江 · 宕攝으로 합류되었다. 江 · 宕攝은 早期官話에

26) 이에 대해 필자는 대략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14세기에 讀書音이 北方官話에 차용되었고 그 이래 北方官話에서 口語音과 讀書音이 並存했을 것이지만, 15세기후기부터는 讀書音이 漸次 優勢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明朝 建立(1368)과 北京 遷都(1421)에 따른 인구 이동과 정치, 사회, 문화적 변동과 관련 있다고 추측한다. 現代北京語에서는 口語音과 讀書音이 병존하지만 讀書音이 다소 우세하다고 본다.

서 《洪武正韻》의 '陽韻部', 《中原音韻》의 '江·陽韻部'를 이루었다. 江·宕攝 陽聲韻은 低母音 音素의 통합에 따라서 韻基가 /-aŋ/이 되어서 '十三韻'의 '江陽韻' /-aŋ/을 이루게 되었다.

既存 研究에 의하면 中期官話는 零韻尾 음절에서는 母音 음소가 4개 즉 /i, e, a, ɔ/, 非零韻尾 음절에서는 母音 음소가 2개 즉 /i, a/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後期中古音에서 軟口蓋音 韻尾 /ŋ, k/ 앞에서 低母音 음소 /a/가 /ɔ/에 합병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중기관화 시기에 早期官話의 4母音 體系 (/i, e, a, ɔ/)는 現代北京語의 3母音 體系 (/i, ə, a/)로 변화되는 過程에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江·宕攝의 入聲韻尾 /-k/는 讀書音에서는 /-ʔ/로 변화된 다음에 탈락되었을 것이고, 口語音에서는 /-ʔ/로 변화된 다음에 脣音 半母音 /-w/로 변화되었거나 직접 /-w/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今俗音에서 '藥韻' 字音들은 讀書音 방식에 따라서 零韻尾 음절로 변화되고 그 核母音은 [-o-, -ɔ-, -ə-]로 변한다. 이 核母音 [-o-, -ɔ-, -ə-]는 점차 中後舌母音 [ɻ] 또는 이와 近似한 音으로 발음되었을 터이다. 바로 이것이 中期관화 이후에 中母音 音素 /ə/를 이루게 되었으리라고 추측한다. 결국 '藥韻'의 口語音 字音들은 /-k/의 反射形(reflex)으로 /-w/가 남아서 韻基가 /-aw/로 변해서 十三韻의 遙條韻 /-aw/에 (예를 들면 '角, 藥字) 속하게 되었다. 讀書音 字音들은 韻基가 /-ə/로 변해서 梭坡韻 /-(w)ə/에 (예를 들면 '各, 托字) 또는 乜衮韻 /-j(w)ə/에 (예를 들면 '覺, 却字) 속하게 되었다.

#### 〈參考文獻〉

- 崔世珍, 《四聲通解》(影印本)  
 \_\_\_\_\_, 《翻譯老乞大》《翻譯朴通事》(影印本)  
 \_\_\_\_\_, 《等韻五種》臺北: 藝文印書館 複印, 1981.  
 강신항, 《四聲通解研究》, 서울: 신아사, 1973.  
 \_\_\_\_\_, 〈翻譯老乞大·朴通事の 음계〉, 《震檀學報》제38집, pp.123-150, 1974.  
 권혁준, 《古今韻會舉要의 음운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영만, 〈現代北京語 音韻體系 研究〉, 《中語中文學》제15·16합집, pp.379-406,

- 1994.
- \_\_\_\_\_, 〈會·梗攝의 音韻變化〉, 《中國語文論叢》 제14집, pp.27-47, 1998.
- 남광우, 〈新發見인 崔世珍著 翻譯老乞大 卷上을 보고〉, 《國語國文學》 제56·57합집, 1972.
- 문선규, 〈江 攝 韻母論〉, 《한국언어문학》 제7집, pp.29-36, 1970.
- 유창균, 《蒙古韻略과 四聲通攷의 研究》, 서울: 형설출판사, 1974.
- 이기문, 《國語音韻史研究》(國語學叢書 3), 서울: 탑출판사, 1977.
- 이기문·김진우·이상억, 《國語音韻論》, 서울: 학연사, 1984.
- 이재돈, 〈현대북경어의 文白異讀현상 연구〉, 《中國文學》 제30집, pp.475-492, 1998.
- 崔玲愛, 《洪武正韻譯訓研究》, 國立臺灣大學 博士學位論文, 1975.
- 董同龢, 《漢語音韻學》(臺北: 廣文書局, 1968), 再版, 臺北: 學生書局, 1974.
- 馮蒸, 《音韻學論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6.
- 耿振生主編, 《近代官話語音研究》, 北京: 語文出版社, 1997.
-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 康寔鎮, 《老乞大朴通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5.
- 李新魁, 《漢語等韻學》, 北京: 中華書局, 1983.
- 林燾·耿振生, 《音韻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83.
- 陸志韋, 〈釋中原音韻〉, 《燕京學報》 31, pp.35-70, 1946.
- 濮之珍, 《中國言語學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王力, 《漢語史稿》 上冊, 北京: 科學出版社, 1958, 修訂版, 北京: 中華書局, 1980.
- 薛鳳生, 〈論入聲字之演化規律〉, 《屈萬里先生七秩榮慶論文集》, pp.407-433, 臺北: 聯經出版社, 1978.
- \_\_\_\_\_, 《北京音系分析》,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86.
- \_\_\_\_\_, 魯國堯, 侍建國 合譯, 《中原音韻音位系統》,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0.
- \_\_\_\_\_, 耿振生, 楊亦鳴 選編, 《漢語音韻史十講》, 北京: 華語教學出版社, 1999.
- 楊耐思, 《中原音韻音系》,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 \_\_\_\_\_, 《近代漢語音論》, 北京: 商務印書館, 1997.
- Chou, Shi-zhen. 《Hong-wu zheng-yun: Its relation to the Nanjing dialect and its impact on Standard Mandarin》,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9.
- Hsueh, F. S. 《Phonology of Old Mandarin》, Janua linguarumk, 179, The Hague:Mouton, 1975.
- Kim, Kwangjo, 《A phonological study of Middle Mandarin: Reflected in Korean sources of the mid-15th and early 16th centur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1.

Kim, Youngman. 《Middle Mandarin Phonology: A study based on Korean data》,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9.

〈ABSTRACT〉

This study reconstructs the rhyme base of the non-entering tone syllables of the Jiang and Dang rhyme classes in Old Mandarin as [-ɑŋ] /-ɔŋ/ and that of the same syllables in Middle Mandarin as [-ɑŋ] /-ɑŋ/.

It also reconstructs the rhyme base of the entering tone syllables of the Jiang and Dang rhyme classes in Old Mandarin literary pronunciation as [-ɑk] /-ɔk/ (or [-ɑʔ] /-ɔʔ/), that of the same syllables in Middle Mandarin literary pronunciation as [-ɔ] /-ɔ/ (or [-ə] /-ɔ/), and that of the same syllables in Middle Mandarin colloquial pronunciation as [-aw] /-aw/.

Furthermore, it examines their diachronic sound changes the syllable finals of the Jiang (江) and Dang (宕) rhyme classes from Late Middle Chinese through Old Mandarin and Middle Mandarin to Modern Pekingese.

This study makes use of the Korean phonetic transcriptions of pre-modern Mandarin pronunciations of Chinese characters in order to determine the pre-modern Mandarin pronunciations of the syllables of the Jiang and Dang rhyme classes .

**Keywords :** 等韻圖, 內外混等, 官話, 江攝, 宕攝, 正音, 俗音, 今俗音

이 논문은 2008년 11월 19일에 접수되어 2008년 12월 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